

## 투데이

# 5000억대 방사광가속기 광주 유치 추진

## 市·지역 정치권 “삼각벨트 완성에 필요” 교과부에 요청

국제과학비즈니스밸트 본원 유치에 실패한 광주시가 5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예상되는 차세대 방사광가속기를 지역에 설치해 줄 것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강력 요청하고 나섰다.

광주시는 23일 “차세대 방사광가속기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을 초국가 대형연구시설 구축계획에서 설치 필요성을 강조한 시설로, 지역정치권과 함께 광주로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제과학비즈니스밸트를 대전, 광주, 대구·경북에 설치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대전에 중이온가속기가 들어설 예정에 있고 포함에 이미 방사광가속기가 설치돼 있어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입지는 광주가 돼야 한다는 것이 광주시의 입장이다.

방사광가속기는 기준 광원의 100만배 이상의 강력한 빛을 만들어내는 원자, 분자 수준의 근원적 구조를 규명할 수 있는 첨단 과학기술 연구에 필수적인 장치로, 광주가 유치에 나선 차세대 방사광가속기는 다목적으로 에너지가 3.5기가전자볼트(GEV)에 달한다.

광주시는 지역정치권과 함께 교육

과학기술부 등에 차세대 방사광가속기의 광주 입지 타당성을 설명하며 유치활동에 나섰고, 광주지역 국회의원들도 22일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건의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밸트의 최적 입지였던 광주에 차세대방사광 가속기를 설치해달라는 정당한 요구로 애초 주장했던 삼각벨트의 완성에도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국제과학비즈니스밸트(이하 과학밸트) 거점·기능

지구로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선

정했으며 광주는 7년 간 광주과학기술원(GIST)에 5개 안팎의 연구단과 기초연구 지원 명목으로 4000억원, 캠퍼스 건설 및 광주여건 조성 등 연구기반 조성 명목으로 2000억원 등 모두 6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광주 지원 규모는 전체 사업비 5조 2000억원의 10%를 웃도는 수준으로 대전 대덕특구 2조3000억원(연구단 25개 내외 및 중이온가속기 구축 등), 대구·울산·포항 1조5000억원(연구단 10개 내외 등)에 비해 3분의 1~4분의 1수준에 불과해 광주시는 정부에 재심사를 촉구하고 최근에는 일자 선정 과정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한국전쟁 美참전용사 조지 드레이크씨

## 광주시에 사진·문헌 등 4천점 기증키로

### 市 “총현원에 기념관 지어 전시”

한국전쟁에 참가한 미국참전용사가 그동안 각지에 전시를 했던 사진과 자료, 문헌 등 4000여 점을 광주시에 기증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이 기증품을 국내 최초 고아원으로 복원사업이 추진중인

광주시 남구 양립동 총현원에 기념관을 지어 전시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23일 “이날 오후 공원 위원회를 열어 참전용사인 미국인 조지 드레이크(Geroge F Drake)

씨의 기증물품을 전시하는 기념관과 참전용사들의 체험관을 짓는 사

직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직근린공원 내 총현원에 7억6000만원을 들여 기념관(239㎡)과 체험관(446㎡)을 올해 말까지 조성할 예정이다.

또 멕시코 출신작가가 기증한 라

팔로마스(평화의 비둘기), 비운의 황좌(전쟁 당시 희생된 어린이들)

등 조형물 2점도 조지 드레이크씨가 문반비를 부탁해 총현원 내에 설치된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현원 1차 복원사업을 통해 전시관, 예술관, 보육관 등의 복원을 마쳤으며, 올해 2차 복원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조지 드레이크 씨의 기증 의사를 받아들여 총현원을 참전용사의 공간으로 꾸미기로 했으며 양립동 일대 근대문화유산과 더불어 관광자원화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전남 거주 외국인 자녀수 1만3000명

### 전국 15만1000명…3년새 2.6배 껑충

국제결혼으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광주·전남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 수가 1만 3000여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을 조사한 결과 외국인과 한국인 부모 혹은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미성년 자녀가 15만 1154명에 달했으며 광주에 3403명, 전남에 9764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주 외국인 수는 광주(145만4636명)가 1만8824명으로 주민등록인구 대비 1.3%, 전남(191만8485명)은 3만5077명으로 1.8%를 각각 차지했다.

거주 외국인 중 한국국적 취득자는 광주가 1423명으로 전체 외국인의 7.56%, 전남이 2832명으로 8.07%였으며 이를 외국인 및 외국인·한국인 부부가 낳은 외국계 주민자

녀는 광주가 3403명, 전남이 9764명으로 분석됐다.

전국적으로 외국인 자녀 수는 지난 해에 비해 2만9129명(23.9%), 3년 전보다는 무려 160%나 늘어났다.

지역별로 경기도 3만7519명, 서울 2만484명, 경남 1만996명, 전남 9764명, 경북 9천246명 등의 순이다.

외국 국적자 중 외국인 근로자는 55만2946명, 결혼 이민자는 14만 1654명, 유학생 8만6947명, 재외동포 8만3825명 등이고, 한국국적 취득자 중 6만9804명은 혼인 귀화자이다.

/윤현석기자 dok2000@kwangju.co.kr

### F1 코리아 그랑프리 조직위 광주 등 전국서 순회홍보관

국제 자동차 경주대회인 포뮬러원(F1) 코리아 그랑프리 조직위원회는 순회홍보관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25일부터 이를간 서울 구내에서 처음으로 문을 여는 홍보관은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차례로 운영된다.

홍보관에는 F1 머신 모형과 지난해 한국 대회 출전 드라이버의 핸드프린팅 조각들, 지난해 한국 대회의 주요 장면을 담은 대형 사진들이 전시된다. 어린이들이 미니 슬롯카를 타보는 체험행사가 마련되고 올해 한국 대회 관람 티켓이 경품으로 나온다.

/김자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최근 석방된 중국 인권운동가 아이웨이웨이가 23일 자신의 스튜디오를 찾은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에 집 밖으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광주비엔날레재단 “아이웨이웨이 석방 환영”

### 디자인비엔날레 참석 불특명

중국 당국에 의해 구금됐던 제4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공동 감독이자 인권운동가인 아이웨이웨이가 풀려났다. 하지만 보호관찰 처분을 받아오는 9월2일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개막식에 그가 참석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23일 성명서

를 통해 “아이웨이웨이가 구금 81일 만인 지난 22일 석방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석방 당일, 베이징 교외의 자신의 스튜디오에 도착해 외신 기자들에게 “건강은 괜찮다. 석방조건 닫아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국 현지 언론은 “그가 지병을 앓고 있고 탈세한 금액을 납부하겠다고 했으며, 자신의 범죄 사실을 시인했

기 때문”이라고 석방 배경을 밝혔다. 그의 스튜디오 주변에 CCTV가 설치되는 등 공안의 감시는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이웨이웨이는 지난 4월 세금 탈루 등의 혐의로 공안에 연행됐는데, 서방과 인권단체들은 중국 정부가 그의 인권운동을 탄압한다면 강력하게 반발했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서규용 농림부 장관

#### 24~25일 전남 방문

### 서 규용 농림부 장관

#### 24~25일 전남 방문



서 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24일부터 25일 일정으로 전남을 방문한다.

서 장관은 24일 함평군 다목적 복지센터를 방문한 뒤 25일에는 함평군 도평면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현장 및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사업 건설 현장을 찾아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배수갑문 공사 현장 등을 점검한다.

서 장관은 또 나주 드림강 밤장어 양식장을 둘러보고 배 재배농가도 찾아볼 예정이며 전남 수산업자 및 과수 농가와의 간담회를 통해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상경한다.

### 고소득 농가에 소득세 부과 검토 ‘논란’

기획재정부가 고소득 농가에 대해 소득세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지난해 국회에서 농업소득에 대한 과세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서 조세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말했다.

### 비위 공무원 징계시효 폐지 추진

감사원과 국무총리실, 국민권익위원회 등 사정·리인·행정안전부가 비위 공무원의 징계시효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 전자주민증 2013년 도입 무산될 듯

주민등록증을 2013년부터 IC 칩이 내장된 전자주민증으로 교체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실현되지 않을 위기로 보인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최근 열린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 남성 성기능 강화제

본제품은 왕라, 복분자, 구기자, 갈근 등 20여 가지의 한약재로 제조하였으며, 특히 왕라는 허브의 일종으로 자양강장역할을 하여 다미아나 혈관과 호르몬계의 도움이 된다. 단백질을 저장하는 힘을 둑구어 근육을 강하게 해준다는 뮤큐나프리언스를 주성분으로 하여 원활히 공급함으로서 당신의 자존심을 지켜줍니다.

### 실크방법 및 제조특징

- 평소에 별기는 되나 지속성이 없거나 조류가 있는 분들은 성관계 전 약 2~3시간전에 1정을 섭취하세요. 1~5일까지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 별기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분들은 1일 2정을 3~7일 정도를 연속으로 섭취 하시면 별기가 질립니다.

**문의 010-7770-8138 주문즉시택배 무료배송**  
농협 302-0136-6325-61 권옥연

**경매투자**

- 공동투자자 및 자본주 모집
-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장
- 자상권 등 특수로 거둔 투자
- 50% 미만 물건만 투자

**전남·부 축강파티 전문업체**

출장뷔페 · 도시락 · 식판급식 · 성당  
교회결혼식뷔페 · 야외결혼식뷔페  
칠순/필순잔치 · 체육대회 · 야유회  
종친회 · 기업체 각종행사

**파티외식산업**

문의 본사 ☎ (062)226-0086 | H.P 010-4601-3222  
[www.party-food.co.kr](http://www.party-food.co.kr)

**한자교육 〈천자문과 한자성경으로 배우는 한자교육〉 혁명**

아동 : 00명, 성인 00명을 3개월, 1년 과정 모델교실에 특별 초대함

한자성경으로 단기간에 한글을 한글처럼 알게 됩니다!

한글은 3장 정도만 자유롭게 읽는 분이며 읽습니다. 한자성경은 한자전용이 아니므로 기본 잘 몇 장만 읽기 되면 한자를 한글처럼 읽을 수 있습니다. 뜻은 한글처럼 동시에 알게 되고 한자성경 사용교재에 1년 정도 출석만으로 4000여 글자를 한글처럼 읽을 수 있습니다.

천자문으로 단기간에 한글을 한글처럼 알게 됩니다!

천자문은 고대 중국 역사로 삼황에서 삼국시대까지 40여명의 인물과 나라, 지명, 약어(준말)와 옛날 익기교재로 배우게 되면(방문자 5분에 읽는 천자문 증정) 단기간에 천자문을 누구든지 예전처럼 쉽게 배우고 한자를 한글처럼 아는 자를 길이 됩니다.

● 시범강좌 및 교육설명회  
7월3주(주)일 오전11시 예배와 오후 2시 7월7일, 목요일 오전10시  
예배교회에 7월3일에(오전 11시, 오후 2시 교육설명회) 출석하시는 분들에게 한자성경을 드립니다. (준비관에게 사전접수요망)

● 찾아오는 길 : 광주 수원지구 성덕중학교 건너편 피리비개 터널  
예전의 교회 ☎ 연락처 : 010-3911-3907 062-433-3907  
강사 : 전제웅원장  
(한자교육수원장, 10년간 한자교육방법연구 한자는 한글보다 쉽다 저자)

성경주본(가족 30,000원, 비닐 20,000원, 찬송가본 4,000원 택배비포함)성서공회발행  
<교육현장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주문 가능합니다.>

● 교육상담 ☎ 010-2218-1255

**한자교육(전도학교)연수원<시 군 구 지부 모집 중임>**

광주시 광산구 광산구 장기동 1086번지 성덕중학교 건너편

☎ 062-433-3907

- 한자교육연수원 [cafe.daum.net/jeodanglove](http://cafe.daum.net/jeodanglove)
- 메일 : [junhanja@hanmail.net](mailto:junhanja@hanmail.net)